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대한 연구 Study on Teenager's Specific Fear of Crime

오 봉 욱
서원대학교

Oh Bong-Yook
Seowon Univ

요약

본 연구는 2014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10대 청소년 1,161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근거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AS 9.4와 HLM 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개인 수준에서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인식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그리고 청소년이 취약성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없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인식을 근거로 안전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공동체 운동 및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I. 서론

청소년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안전해야 할 학교는 안전과는 거리가 먼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청소년과 관련된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 학업성적,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 행복한 학교생활도 힘든 상황에서 또래친구들에 의한 괴롭힘, 폭력 등의 피해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낮아지고 지각과 결석이 잦고 등교거부, 가출과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외상을 남겨 학교 부적응을 초래한다[1]. 따라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사회복지적 실천개입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죄 두려움의 개념

범죄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된다[2]. 범죄 두려움은 개인에게 특정 장소와 행위, 시간 등에 대한 기피현상 등 개인의 삶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의 신체적 혹은 사회적 취약성에 의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취약성 가설, 과거범죄피해 경험에 의한 피해 가설, 무질서 이론, 사회통합 이론, 경찰활동 이론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3].

구체적 범죄 두려움은 막연한 범죄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범죄피해 유형으로 절도, 사기, 손괴, 무단침입,

강도, 폭행(상해), 스토킹, 성추행(성폭행)을 제시하고 이 범죄피해 유형에 대해 얼마나 범죄피해 두려움을 갖는지 조사한 것이다.

2.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선행연구

청소년이 인식하는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을 살펴보면, 절도피해(14.0%), 사기피해(13.5%), 소매치기피해(9.3%), 폭행피해(9.0%), 협박피해(8.9%), 금품갈취 피해(8.2%) 순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범죄에 의한 피해유형보다 재산범죄에 의한 피해 유형에 대해 다소 두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유형보다 재산범죄피해 유형에 대해 다소 더 두려워하였다[4].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자료 중 연구목적에 맞는 응답자 7,877명 중 10대 연령만 선택하여 남자 청소년 614명, 여자 청소년 547명 총 1,16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1 종속변수

구체적 범죄 두려움은 총 8개 문항으로 범죄유형별 범죄 두려움으로 '절도, 사기, 손괴, 무단침입, 강도, 폭행(상해), 스토킹, 성추행(성폭행)의 구체적 범죄피해에 대해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염려)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며,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분석은 8개 문항을 합하여 그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alpha=.943$).

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개인수준으로 취약성 이론에 근거한 성별, 장애유무, 학력, 취약성인식, 범죄피해경험(직접, 간접), 일상생활만족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역수준으로 무질서 이론에 근거한 물리적 무질서($\alpha=.738$), 사회적 무질서($\alpha=.753$)와 사회통합 이론에 근거한 지역유대($\alpha=.902$)와 비공식통제참여($\alpha=.674$) 그리고 경찰활동 이론에 근거한 경찰활동($\alpha=.791$)으로 측정하였다[2].

3. 분석방법

10대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SAS 9.4와 다층모형 분석을 위한 HLM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대해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 크기를 파악하고자 HLM 6.0 프로그램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살펴보고자 다층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층모형 분석 : 기초모형

종속변수인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변량에서 개인수준의 변량은 0.713이고 지역수준의 변량은 0.039로 나타났다. 급내 상관관계수 값(ICC)이 0.052이므로 지역수준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5.2%이다.

2.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 영향 요인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평균 0.567점) 영향 요인은 개인 수준에서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 인식요인에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높고($\beta=-0.240$)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높았다($\beta=0.187$). 그리고 취약성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beta=0.596$).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은 취약성 인식 β 값이 0.47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 외의 개인수준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 영향 요인

구분	고정효과:구체적 범죄 두려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β	T-ratio
절편		0.567	0.889		0.638
개	성별	-0.240	0.047	-0.138	-5.118***

구분	고정효과:구체적 범죄 두려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β	T-ratio
인수준	장애유무	0.187	0.084	0.013	2.236*
	취약성인식	0.596	0.036	0.477	16.357***
	직접피해경험	0.127	0.096	0.028	1.328
	간접피해경험	0.149	0.102	0.036	1.461
	일상생활만족	-0.028	0.015	-0.057	-1.898
지역수준	물리적무질서	0.070	0.044	0.071	1.587
	사회적무질서	0.086	0.051	0.094	1.674
	지역유대	-0.043	0.027	-0.077	-1.580
	비공식통제참여	0.089	0.053	0.081	1.693
	경찰활동	0.021	0.063	0.015	0.326
확률효과			표준 편차	변량 요소	카이 제곱
절편		U0	0.222	0.049	272.891
구체적 범죄두려움		R	0.701	0.491	
편향도(Deviance)		= 2592.883		(DF= 2)	

* : $p < .05$, ***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근거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막연한 일반적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5]. 이때 성별과 취약성인식에서 유의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취약성인식, 장애유무에서 유의미하였다. 그 외의 요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적 실천개입방안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공동체 운동과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자연적 감시활동을 증가시키고, 지역내 여성과 장애인, 취약성인식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을 활용한 위기 청소년의 발견, 구조, 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민간(시민단체, 청소년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이 함께한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 [1] 김상운, “학교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152-159. 2013.
- [2] Ferraro, K. F.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3] 오봉욱, 취약집단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4] 홍영오, 연성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396.
- [5] 오봉욱, “십대 청소년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방안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0호, pp.119-140.